

日, 전력사업 부분자유화

일본의 전력사업 부분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전력요금의 인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는 전력사용이 많은 특별高壓수요자는 임의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단가를 제시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력공급의 자유화를 주도하고 있는 통산성이 가장 먼저 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2월말에 입찰안내 설명회를 갖은바 있으며 참가업체중 전력회사 6개사와 신규참가를 계획중인 6개 기업이 응찰 의사를 밝히고 있다.

통산성 산하에는 특허청, 공업기술원산하 연구기관등 10개 기관이 자유화대상인 대형수요자로 이들 기관의 연간 전기요금은 24억엔을 상회하는 규모인데 우선은 통산성 단독으로 5월중에 입찰을 실시하며 계약기간 1년으로 8월부터 새로운 요금

으로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한편 여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체들도 전력공급의 경쟁입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통산성은 중앙부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신제도 및 입찰절차에 대한 설명회도 준비중이다.

또한 전력공급 자유화 대상인 대형수요처가 전국적으로 8천여개에 달하고 있어 통산성은 지방통상국으로 하여금 대형수요처를 대상으로 신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기업과 자치단체에도 전력공급의 경쟁입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력사업의 자유화로 예산집행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들은 올해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신제도는 조기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부전력·美CE, 공급자정보교환 각서 체결

추부전력은 미 미시간주 최대 전력회사인 콘슈머즈에너지-(CE)와 자재조달분야에서의 '각서'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추부전력이 일본이나 동아시아의 메이커 등 공급자정보를 제공하면, CE로부터는 자재조달에 나서는 업자를 철저히 경쟁시키는 미국식의 수법을 배워, 자재조달원가 삭감에 연결시킨다. 일·미국의 전력회사가 자재조달분야에

서 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E는 발전·송전·배전을 일관해서 다루는 한편, 가스공급에도 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어 전력가스공급 회사로서는 미국에서 4위 규모이다. 공급지역은 미시건주로 전력계약수는 1백60만 구좌이다.

이번의 각서에서는 '공급자정보교환'으로서 추부전력이 일본과 동아시아의 공급자, CE가 주로 북

미의 공급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공급자간의 방문조사를 지원한다.

또 CE로부터 자재조달에 관한 미국의 수법, 예컨대 설계에서 구매, 수송설치 보수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전면적인 원가절감을 도모하는 '공급체

인 매니지먼트' 등을 흡수하거나, 미국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조달수법 등을 배운다.

주덴은 글로벌 수준에서 자재조달력을 강화하는 것이 각서의 목적이며 미국의 전기사업자는 자재 부문에서의 원가절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히다치, 아몰퍼스 변압기 판매업 강화

히다치제작소는 아몰퍼스변압기의 확대판매에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의 성에너지법 개정으로 수요강화가 예상되는 변압기시장에 대비, 확대 판매를 위한 이번 전략은 시장점유율을 통한 매출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자가 발수변전 시장의 매출을 배 이상 확대해 금년도 전망의 3~4배 이상을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아몰퍼스변압기 'Super아몰퍼스'를 일본 내 처음으로 개발해 '97년에 시장에 투입했으며 일본 메이커로는 유일하게 아몰퍼스변압기의 설계·제조·판매까지를 일괄 처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을 비롯한 국내외에 자가 수변전 설비에 약 1,000대를 납품했고 그 가운데 금년도는 약 800대로 제조거점의 생산라인을 현재 풀가동중이다.

동사는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의욕적인 사업목표를 설정했다.

연간 1,000대 이상의 매출 실적을 확보, 아몰퍼스변압기 시장에서 60·70% 정도의 점유율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목표실현을 위해 아몰퍼스변압기와 배전·유틸리티 감시 시스템 H-NET과 연계, 환경과 성에너지 제안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전기에너지 소비형 산업분야 등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전기기·조명 관련제품 수입 급증할 듯

대만 전기전자협회(電機電子公會)가 협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지진 발생이후 금년부터 지진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임에 따라 관련 전기산업, 특히 중전기기(重電)와 조명 및 관련 부품산업이 가장

호황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또한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9년도 대만 전기산업의 생산액은 약 NT\$ 3,946억으로 전년대비 12.9% 성장했다. 수입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고 수출은 약간 증가

했다.

전기전자협회는 현단계는 회복, 성장기에 있다고 보고 특히 중전기와 조명사업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선케이블경기는 회복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경기침체였던 가전제품업은 아직도 경기가 바닥이지만 '99년 보다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도 대만 국내시장을 살펴보면 재해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만전력공사(台電)가 제 5, 6송배전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전기사업 자유화의 발걸음도 한층 빨리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세계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對일본 및 유럽 수출량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對미국, 동남아 그리고 중국시장으로의 수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60%의 전기전자업체들이 2000년도 전기산업은 6~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그중 중전기와 조명 및 관련 부품사업이 특히 호황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전기는 11~1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결과 2000년도 전기산업 생산량과 주문량 그리고 국내외 판매량이 전년대비 6~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비록 재료 등의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총비용이 1~5%까지 상승하겠지만

가격은 오히려 6~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기전자협회는 '99년 정부가 실시한 내수경기 부양정책으로 전기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가전경기는 여전히 침체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당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전업의 기로가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주요 부품산업 역시 장기적으로 일본 등 외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국내의 산업계, 정부, 학계, 연구기관들의 R&D 능력을 통합시켜 부품 국산화를 이룩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전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보고서는 전세계 전기제품의 R&D 추세를 분석했는데, 제품별로 보면 스위치설비와 개폐기는 전자화, 소형화, 고용량, 센서형, 네트워크형(網路型), 시스템화, 통합화, 경소화 추세로 개발되고 있고 발전기와 모터는 고용량, 고효율, 내수성, 안전성, 저소음, 적은 부피와 시스템 통합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치보드와 전기제어설비는 전자화, 센서화, 소형화, 전력 자동화, 탄력적인 운용추세로 개발되고 있고 변압기부문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저손실, 저오염, 높은 안전성, 적은 부피, 중량이 가벼운 제품쪽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전력시장 개방한다

싱가포르는 그간 강력히 규제했던 전력시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의회 보고

에서 싱가포르 조지 여 통산부장관은 2001년말이나 2002년초까지 전력부문의 규제를 풀고 외국인

참가에 대한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력시장 개방계획을 요약하면 국내의 기업에 대해 전력생산과 판매분야를 개방 하되, 송배전 분야는 당분간 규제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개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전력 판매 자유화

- 소매 전력시장(산업용 및 가정용 전력을 판매 하는 시장) 단계적 개방
- 외국기업을 포함, 기업의 소매시장 참여 자유화 : 수입, 자체 발전, 기존 발전 회사에서 구입 한 전력의 판매 가능
- 개방 일정
 - 1단계(2001년 4월 1일부) : 산업용 전력시장 개방
 - 2단계(2002년) : 가정용 전력시장까지 개방 확대

▲ 외국인 전력시장 참여 제한 철폐

- 외국인의 소매 전력시장 참가 가능

- 외국인의 발전회사 소유 가능

- 외국인이 현재 Temasek Holdings(싱가포르 정부 持株회사)이 보유중인 3개 발전 회사 100% 소유 가능

▲ 전력 송배전망은 독점 존속

- 싱가포르전력(Singapore Power)은 전력 송배 전망(power grid)에 대한 독점권은 존속한다. 싱가포르 전력시장 개방의 배경은 그간의 규제 로 인해 전기요금이 높고 서비스가 다양하지 못하 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외국투자자 들 역시 전력비용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통산 부의 설명이다.

개방시기가 아직 1년 이상이나 남아 있고 일정 도 단계적으로 잡혀 있어 이번 개방계획이 당장 싱가포르 전력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내년 4월을 목표로 외국기업 및 내국기업의 전력시장 참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력시장에는 엄청난 변 화가 전망된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유럽에 전력 수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공동으로 서 구 유럽에 전력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UES(Unified Energy System)의 Anatoly Chubais 회장은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최초의 공동 전력수출 프로젝트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다고 UES의 소식통 이 Itar-Tass 통신에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에너지를 유럽 에 수출하기 위한 공식 협력 회사 설립에 관하여 2월 7일 독일의 Essen에서 양측은 계약서의 초안 작성을 하였다.

계약서 초안 작업에는 러시아의 UES, 우크라이나 의 국가에너지 회사인 Ukrinterenergo사의 대표 와 오스트리아의 Verbund와 독일의 Bayernwerk



컨소시엄 측이 참여하였으며 서구 유럽 남부 국가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연합의 주요 전력 에너지 수입국가가 될 것이라고 Chubais 회장은 전했다.

Chubais 회장은 우크라이나의 키예브에 머무는 동안 양국 전력망의 병렬 운영과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러시아 전력의 송전 문제에 대해서도 토

의했다.

이 문제들은 특히 전력 수출을 위해 송전시 요구되는 표준 교류주파수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해결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력망의 설비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UES의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英 파워젠, 美 LG&E 인수

세계적인 전력회사인 영국의 PowerGen사는 최근 미국 LG&E사의 주식을 전량 인수하기로 LG&E와 합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PowerGen은 LG&E의 주당 가격을 24.85달러에 인수하며 전체 거래규모는 32억 3,300만 달러(2억 210만 파운드화)이고 전액 현금으로 지불된다.

PowerGen의 이번 인수합병은 세계 최대의 전력시장인 미국에 주요 교두보를 구축한다는 PowerGen의 전략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PowerGen은 이번 합병이 전력 및 가스분야에서 세계 선두의 회사로 발돋움하고, 주주들에게는 큰 이익이 돌아

가도록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LG&E는 미국 켄터키주 Louisville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력 및 가스통합 그룹이다.

이 회사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켄터키주 부근은 미국 전력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PowerGen이 LG&E를 인수함으로써 PowerGen은 이 전력시장에서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게 됐다.

LG&E의 인수건은 2001년 초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그 후에는 이 회사의 로저홀(Roger Hale) 회장이 PowerGen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레바논, 변압기시장 진출 유망

레바논 및 인근 시리아시장의 변압기 및 변압기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관심이 요망된다.

레바논은 전력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해 6월과 금년 2월초 이스라엘의 레바논내

주요 변전시설 폭격으로 12개의 변전시설이 파괴되었으며, 기존 시설도 개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총 변전시설 개선사업에 3억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초 이스라엘 공격으로 파괴된 발알백 변

전소의 변압기는 66/15kV이며 Deir Nbouh는 220/66kV 및 220/150kV이며 잠후르지역의 변압기는 150/66kV 및 66/15kV의 변압기이다.

레바논내에서 변압기는 1개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인근국 시리아에는 변압기 생산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레바논내 Matelec사에서 제조하는 변압기는 25kVA에서 10,000kVA, 72.5kVA까지의 중소형이며 중동 인근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으나 지난해 6월과 금년 2월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파괴된 발알백 등의 변전시설은 '94년 한국에서 공급된 변압기이다.

레바논의 '98년 변압기 수입실적을 보면 용량 16~500kVA의 경우(HS 850433)는 220만달러이며 이외에도 변압기 생산용 각종 부자재의 수요도 많으나 한국산은 진출이 미미하다.

레바논내 변전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GE/Hitachi, Matelec/Melec 컨소시엄, Schneider 그룹 등이다.

변압기 수요증가에 따라 Modern Co. for Cables Industries사는 시리아의 주요 공단지역인 알레포에 공장건물을 완공했으며 연간 4천t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독일 지멘스 및 불가리아 업체 등으로부터 견적을 확보하고 한국으로부터의 공급 가능성을 최종 타진하고 있다.

이 회사는 시리아 정부의 변압기 유지보수 계약을 통한 변압기 및 각종 자재를 공급하고 인근국으로도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국내의 Transformer 및 Transformer 생산용 기계 공급업체의 조속한 접촉이 요망되는데, 변압기의 사양은 Oil-Limmersed Distribution Transfomer(50-To-250kVA)이다.

■ 시리아내 변압기 생산 희망업체

- 회사명 : Modern Co. for Cables Industries
- 주소 : Damour P.O. Box 13 5254 Lebanon
- 전화 : 961-5-601191/3
- 팩스 : 961-5-601194
- 담당 : Mr. Tarek Zaim(Board Member)
- 비고 : 동사는 레바논에서 각종 고압 케이블류를 생산해 레바논, 시리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라크 입찰도 적극 추진중이다. 시리아에 추진중인 공장은 Shahba Trans-formers사이며 국내기업의 접촉시는 상기 연락처로 해야함.

■ 레바논 변압기 생산업체

- 회사명 : Matelec Sal
- 주 소 : Ghorfine-Amchit P.O. Box 12 Jbeil Lebanon
- 전 화 : 961-9-620920
- 팩 스 : 961-9-620934/961-1-416131
- 이메일 : matelec@attmail.com
- 담 당 : Mr. Sami Soughayar (General Manager)
Mr. Joseph Abou Halloun (Deputy Manager)
- 생산품목 :
 - Oil Immersed Transformer (25-10,000kVA, 72.5kV까지)
 - Cast Resin Dry타입 Transformer (160-2,000kVA, 24kV까지)
 - Medium Voltage Switchgears, Lv Switchboards, Control & Protection Panel
- 비고 : 동사는 Alsthom-Unilec사의 라이선스

하에 '74년부터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원자재를 주로 프랑스, 미국, 사우디아라비

日本, 이형봉강 가격인상 난항

일본 川崎製鐵 계열의 다이와스틸, 新日本製鐵 계열의 合同製鐵 등 전기로 각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형 봉강의 가격인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종수요자인 종합건설 업체의 구매의욕이 저하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던 상승경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일본 내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關西지구의 전기로메이커는 지난 2월 상승에 사용, 출하가격을 톤당 2만5천엔으로 1천엔 인상하기로 결정, 강경자세로 판매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상사의 종합건설 업체용 판매가격은 2만4천엔을 상한으로 상승이 멈춘 상태이다.

또 동경에서도 2만6천엔에서 천정감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수요의 부진으로 종합건설 업체의 발주량이 저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대형상사들 사이에

서는 "종합건설 업체의 인하요구가 강하며, 전기로 메이커의 가격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關西지구의 전기로메이커는 수급상황을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 3월의 감산폭을 당초 계획보다 5% 확대하는 시황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關東에서도 지난해 가을에 비해 10~15%의 감산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생산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도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은 3월들어 또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이에 따라 전기로메이커는 가격인상의 난항에다 원료가격이 상승하는 두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ABB, 중전기 탈피로 부활

유럽의 전기·엔지니어링 대형업체인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가 수년의 실적저하에서 벗어나 부활에 성공하고 있다. 핵심사업이던 중전기분야와 결별하고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제조공정 시스템과 금융서비스를 중점 육성해 지난해 4/4분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같은 대담한 시도를 성공시킨 사람은 3년 전 취임한 기술자출신

인 요란 린달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이다.

ABB는 100개국 이상에서 약 16만4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지난 '88년에 스위스와 스웨덴 기업의 합병으로 발족한 이래 전형적인 글로벌기업의 하나로 불리워져 왔다.

ABB의 경영핵심은 2년 전부터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전에 ABB가 자랑하던 전통적인

사업이 차례차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99년 3월 ABB는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발전기 부문을 본사로부터 송두리째 분리해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 합작기업인 알스톰과 합병시키기로 결정했다. 발전기는 당시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부문이었던 만큼 사내 외에서의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원자력발전도 같은 해 12월 영국의 BNFL에 대한 매각이 결정되면서 발전기 부문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또한 ABB는 철도차량제조분야에서도 철수했다. 작년 1월 린달 CEO는 자동차메이커인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본사가 있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를 찾았다. '98년에 양사의 철도차량부문을 통합 설립

한 아드트란츠사의 합병해소가 목적이었다. '최대한 빨리'라는 그의 모토대로 해소교섭은 만나절만에 성사됐다.

그런 한편 타겟으로 정한 분야에서는 매수에 적극 나섰다. 지난 '98년 가을에는 이탈리아계의 계측·제어기기메이커인 에르사그 베일리를 매수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시스템과 기기를 취급하는 오토메이션부문의 지난 4/4분기 매출은 전체의 3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ABB의 최대부문으로 성장했다. 금융서비스부문에서도 증권금융기관의 매수를 지속하여 4/4분기 영업이익은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3억5천만 달러를 기록, 배전과 석유, 가스, 석화부문을 앞질렀다.

독일, VEW AG · RWE AG 합병

독일의 전력 사업자인 VEW AG와 RWE AG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합병을 승인함으로써 독일 최대의 전력회사이며 유럽 최대의 민간 에너지 공급회사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두 회사는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를 오는 6월 27일,

29일 각각 열고, 합병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합병될 회사의 이름은 RWE AG로 정했으며, 연간 매출규모는 약 430억 유로화(미화 430억달러)이고 전체 종업원은 약 17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아대륙 광케이블망으로 연결된다

아프리카는 현재 통신시장의 불모지로 통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전화를 포함한 통신기기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며, 그나마 통화품질도 조악한 편이다.

그러나 이처럼 통신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 대륙

을 광케이블로 둘러싸는 'Africa One'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어 정보통신 산업에 관련된 국내업체의 관심이 요망된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7억4천만명의 아프리카 인구중 전화가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인구는 1,400만명에 불과한데 그나마 대부분 남아
프리카공화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간에는 자체 통신망이 깔려 있지 않은 경우
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과거 식민통치국이었던 유
럽과의 통신사정이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잠비아
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 국
제통화를 시도하면 음성신호는 일단 유럽으로 건
너간 후 다시 신호변환 과정을 거쳐 콩고민주공화
국으로 들어가는 우회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신요금도 엄청나게 비싼 편인데, 아프
리카의 전화이용자가 통신의 유럽우회로인해 지불
하게 되는 비용만 1년에 4억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물론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런 통화품질 및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
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정이 열악한 아프리카에 변화가
일고 있다. 세계은행 및 다국적 기업을 보유한 채
권국들의 압력 등으로 인해 최근 많은 아프리카
국가내 국영기업들의 통신독점이 해체되고 있다.
도처에 민영 이동통신망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물론,
프랑스텔레콤(프), 보다폰 에어터치(영), 말레
이시아 텔레콤 등도 아프리카 내에 지점을 설치중
이다.

현재 무정부 상태인 소말리아에서도 지역 이동
통신망이 가동되고 있으며, 전쟁중인 르완다에서도
이미 핸드폰이 유선전화의 숫자를 앞지르는 등 현
재 500만명인 아프리카내 핸드폰 사용인구는
2005년에는 3,2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만
약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프리카는 몇 년 지
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이동통신 시장
으로 변할 것이라고 국제통신기구(ITU)도 최근

예상한 바 있다.

지난 '99년 6월 출범한 'Africa One' 프로젝트
는 '93년 ITU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후, 현재 아
프리카 30개국 정부가 공동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3만9천km에 달하는 광
섬유 케이블이 대륙을 둘러싸게 되어 아프리카 정
보통신망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을 맡게 된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로지사는
잠수로봇을 동원, 내년부터 8개월에 걸쳐 심해에
광케이블을 설치할 예정이다. 2002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Africa One'에는 최소한 25개 해안국을
접속할 예정이다.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위성
이나 또다른 광케이블망으로 해안의 접속국과 연
결되어 대륙전체가 통신망으로 엮이게 된다. 또한
이 통신망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부유럽국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광케이블망을 대륙을 둘러싼
바다에 설치한다는 것인데, 원래 케이블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공사하기에도 수월하며 비용도 적
게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frica One'의 사업
자들은 현재 53개 아프리카 국가중 절반이상이 전
쟁 또는 내전 상태에 있거나 치안이 불안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케이블을 지상
에 설치하기를 꺼리게 된 것이다.

'Africa One' 프로젝트의 예산은 약 1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아프리카 대부분 국
가의 1년 총생산액을 넘는 금액이다. 그런 이유로
동 광케이블망은 당분간 루슨트 테크놀로지사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Africa One'의 정보송수신
용량은 초당 40기가비트로, 10만 통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 더 이상 유럽으로 통신신호가 우

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프리카 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아공의 Telekom SA사가 당초 참여키로 했던 'Africa One' 사업에서 발을 빼 다 소간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을 보유한 선진국들의 아프리카 통신망 구축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각종 통신망으로 인해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

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D사도 최근 수단에 5천만달러 규모의 위성통신장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L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모리셔스에 4만대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단말기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우리기업의 對아프리카 통신 시장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